

# 도 예산 편성 · 집행 도민 불신 초래

### 도의회 2015 결산심사 결과... 불용액 1,000억 원 넘고, 세금 과오납 부과도 95억 원 달해

전북도의 2015 회계 연도 결산심사 결과 집행 잔액인 불용액이 1,001억 원을 넘고, 세금 과오납 부과가 95억 원에 이르는 등 전북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지난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문제, 불용액 과다, 보조금 반납 증가, 과오납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의 효율성 극대화와는 멀어지고, 행정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총수입액 5조7,661억여원의 4.9%(2,814억7,098만원) 과다하게 발생했다 또 총수입액은 2014년 대비 9.3%(4,903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대비 21.2%(492억여원)이 증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총수입액 증가율보다 23배를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15년도 결산결과 전북도가 행정적으로 이종부과 불복청구 등 잘못해 부과한 과오납이 95억 3,124만 400원에 이르고 있어, 2014년 도 91억 3,311만 2,400원보다 4억여 원 정도가 증가해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의원은 이어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무려 1,001억 7,282만 7,817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도 781억



**농촌일손돕기 나선 부시관 교육생들** 육군부사관학교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7일까지 익산시 여산면 주민들을 위해 학교정병과 교육생 800여명을 투입, 양파 수확 등의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초급반 하사 교육생들이 수확한 양파를 땅에 덮고 있는 모습.

8,910만 6,518원 대비 28.21%인 219억 8,372만 1,299원이 증가했고, 2013년도 집행 잔액 757억 2,891만 6,000원과 비교하면 244억 4,391만 181원이 증가했다. 특히 기획관실의 불용률은 50% 이상 사업반도 11억 3,690만 2,000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관실의 도민제안활성화 추진사업비 78%(152만 원),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비 100%(6억 원), 지체행정과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59.38%(1,900만 원), 도립국악원 국악원 유지관리 사업비

100% (172만 8,000원)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사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전북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2조 5,852억 500만원으로 2015년 전북도 예산현액 4조 9,404억 100만원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의 재정이 보조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결산에 보면,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집행 잔액이 2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해야 할 실정"이라며 "그간의 공모선정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반납에 따른

관련부처의 패널티가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도정 행정 낭비를 꾸짖었다.

허 의원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오고 있는 점에 있어,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단일한 인식과 행태가 더 큰 문제다"면서 "전라북도의 재정력을 더 취약하게 하고, 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철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 도, 농업용 드론 산업 성장 토대 마련됐다

### 농식품부, '검정방법 및 기준' 공표... 8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검정 실시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했다.

이번 '무인항공기 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제안한 '농업용 드론 검정기준 마련' 요청에 따른 결과로 이에 따라 도의 '농업용 드론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드론에 대한 검정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에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검정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8월1일부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검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검정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생명 분야 기술사업화, 농기계 검정 전문기관으로 올해 말 전북 익산시 송학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도는 도내에 농업용 드론 기술 상용화에서 보급까지 이어지는 농업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는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참여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농업용 드론의 시험·평가 및 검정기능을 올해 10월을 목표로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익산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도 신원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도는 농생명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드론전문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의 최적지"라며 "미래 농촌·농업과 ICT·SW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서울 청운관 입사 고시준비생 모집

전북도, 7월 4일~13일까지 21명

전북도가 서울 청운관(고시원)에 입사할 고시준비생 21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 서울강화속 별관에 위치한 청운관은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지역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개관했다. 신청자격은 보호자(부·모)의 주민등록이 전북에 돼 있으면 되고, 지원자가 전북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법시험과 행정, 기술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준비생이면 된다. 접수는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http://seoul.jbream.or.kr)과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서울강화속으로 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한국의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내에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곳' 코너를 개설한다. /정영수 기자

## 행자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섬' 발표

행정자치부는 올해 여행자들의 취향에 따라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을 5가지 테마로 나눠 13일 발표했다.

'날-섬'은 장릉도, 백령도, 비금도(도초도), 위도, 연화도, 한산도(추봉도), 옥지도 등 단체 야외회 활기찬 가족여행 등으로 인기 있는 섬이다.

'힐-섬'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삼시도, 외연도, 대난지도, 외달도, 자은도, 송이도, 청산도, 관매도 연대도(민지도), 신수도, 지심도 등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맛-섬'은 섬만이 지닌 특별한 맛을 거리가 풍성한 섬으로 노화도(보길도), 어청도 등이 있다. '미지의-섬'

은 풍도, 국화도, 응도, 연도, 애도, 우이도, 영한도, 살리도, 추도, 대도, 추자도 등 풍경과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이다.

'가기힘든-섬'은 입도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섬으로 연평도가 선정됐다.

33개 섬은 섬 전문가인관광전문가,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교통편이나 숙박정보 등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내에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곳' 코너를 개설한다. /정영수 기자

## 전주시,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29일까지 상반기 신청자 29개 고등학교 2408명 대상

전주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시책이다.

상반기 희망학교 및 신청자 접수결과 총 29개 학교 2408명이 신청했다.

시는 14일 우석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신청학교를 직접 찾아가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

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 협의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은 신청 후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해당 학생들은 7월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가 통보되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부모 또는 동일세대 형제·제매가 대신 수령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여름방학스피치특강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사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문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파견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 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리스트
- 저서: '35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 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자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